

# 농진청 “초봄 맥류 병, 제때 방제필요”

### “이른 고온으로 발생 가능한 잎집눈무늬병·위축병 초기 방제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맥류 병해충 피해양상을 일리고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다.

봄철 이상고온으로 잘 발생하는 맥류 주요 병해충으로는 잎집눈무늬병과 진딧물이 옮기는 위축병이 있다. 약 10도(°C) 이상 기온이 지속되면 잎집눈무늬병 원균이 식물체에 침입해 병이 진행된다.

먼저, 잎집눈무늬병(Sharp eyespot)은 토양이나 식물 잔재물 등에서 겨울을 난 병원균이 식물체 줄기 아래쪽에 침입해 잎집에 갈색 타원형 병 증상을 남긴다. 심한 경우 어린 식물이 누렇게 변하거나 말라 죽는다. 일반적으로 생육 후기에 이삭이 말라 죽거나(백수), 쫄쫄이 등이 생긴다. 최근 맥류 주산지에서 3~5월 사이의 잎·줄기 갈변 반점 중 3분의 1 이상에서 잎집눈무늬병원균이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맥류 병해충 피해양상을 일리고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다. 사진은 잎집눈무늬병.

잎집눈무늬병은 토양으로 전염하므로 초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보리 잎집눈무늬병에는 티플루자미드, 플루시피록사이드 액상수화제 등의 등록 약제를 발생 초기에 처리한다. 밀과 귀리에는 아직 등록된 약제가 없다. 병원균은 토양뿐만 아니라 식물 잔재물에도 남아 있으므로 수확 후 잔재물

을 철저히 제거해 다음 해 병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위축병은 진딧물이 옮기는 바이러스 병이다. 감염되면 보리 잎은 노란색, 밀·귀리는 보라색 또는 붉은색으로 변한다. 병이 심해지면 식물체가 자라지 않고 말라 죽어 수확량이 감소한다. 최근 진행된 무작위 채취 조사에서 맥류 절반이 위축병 감염으로 진단돼 주의가 필요하다.

바이러스병은 직접 치료가 어렵고 병을 옮기는 기생테두리진딧물, 보리수염진딧물 등을 방제해야 한다. 병에 걸려 식물체의 생육이 저해될 때 요소 2% 액을 10아르(a)당 100리터씩 2~3회 잎에 뿌리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작물별 등록 농약 정보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진우 과장은 “최근 봄철 이른 고온으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므로, 병해충을 유심히 관찰하여 발생 초기부터 방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자치도, 농수산물 수출 촉진협의회 개최

### 올해 목표 농수산물 수출 6억 달러... 2027년까지 9억 달러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도청에서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물 수출 촉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를 비롯해 14개 시군, 6개 수출 지원 기관 수출전문가 및 수출기업들이 참석해 △농수산물 시장 경쟁력과 수출 다변화, △2024년 농수산물 수출 촉진 계획, △시군별 수출촉진 추진현황, △

해외무역 이슈 등에 따른 대응 등 수출 확대 방안인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1월 18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과 브랜드 슬로건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선포하며, 전북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한 전북자치도는 올해 목표로 농수산물 수출 6억 달러를 달성하고, 2027년까지 9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불안과 통화긴축 장기화,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2024년 전북자치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3개 분야 7개 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미국 일본 등 국가별 거점유통망 활용한 주력시장 집중공략 및 신수출국 개척을 통한 다변화를 위해 3개 사

업 11억원,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3개 사업에 18.6억, 축산분야 수출 지원을 위해 0.5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합의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종료에 대응해, 전북자치도는 신규사업인 △농수산물 수출 사전여행 지원(2.6억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10억원), △1주-1기업(농가) 현장 방문상담(비예산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맞서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경기침체, 신선농산물 물류비 보조 폐지 등 어려운 여건 속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 및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수출 확대 기회 요인을 찾고 대응력 강화에 힘쓰는 등 적극 노력해 줄 것과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의 혁신성장 분야의 목표인 2026년 식품가공 매출액 7조 달성을 위한 노력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도청에서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물 수출 촉진협의회를 개최했다.

## 경진원,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지속성장지원사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원장 윤여봉)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지속성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기업 중 2개 기업 이상이 팀을 이뤄야 한다.

신청 기업 모두 사회적경제조직이며, 중간지원조직과 매칭 되어야 한다.

발굴단계에서 5개팀을 선정, 사회적경제조직은 중간지원조직과 연계,

컨설팅을 수행한 뒤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3개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과 매칭된 중간지원조직은 220만원 컨설팅 수당과 발굴단계에서 사업화단계로 선정된 팀은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 4,0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급된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으로 동반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협업 성공 모델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본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업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ta.kr)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및 신청 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063-711-2089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해드립니다”

###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서비스사업 12월 말까지 연장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시행 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인지장애 특성상 사기, 갈취 등 금전적 위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시행을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운영했다.

지난 사업시행을 통해 총 12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재산의 안전보관 및 사용지원 서비스필요한 금액의 인출을 이용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0.7%가 사업시행에 대해 만족했으며, 96.9%는 사업시행 참여로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올해 사업시행은 이 같은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기존 사업시행 이용자 중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104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바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40명을 추가 모집하여 대상자를 확

대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063-713-6008, 6009) 또는 한국장애인사법협회(070-8805-5836, 070-4285-2820)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 사업시행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타인 명의 계좌이체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탁계좌에서 공과금, 통신회비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소비활동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또 한국장애인사법협회와 협조해 재산관리 지원인 교육 등을 강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올해 사업시행을 통해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본 사업으로 이어져 발달장애인이 본인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 전북환경청, 초미세먼지 발생 대비 저감대책 집중 강화 운영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봄철(3월)에 대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에선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3월 한달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총력대응을 추진한다.

첫 번째, 농번기(3월)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여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실행력을 제고한다.

생물성연소 배출 상위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 취약시간(오전 7~8시) 영농부산물(고춧대, 콩대 등) 불법소각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과 연계하여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전개하고 환경청-지자체간 실시간 공유체계를 운영해 신속하게 조치에 나선다.

두번째, 건설공사장 및 생활도로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공사중인 새만금지구 개발사업(3개소)에

대해서 세류·세차시설 운영, 방진망 설치, 사업장 내 주기적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여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비산먼지 저감대책 협의체’를 통해 사업장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과 개선대책을 논의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도모한다.

세번째,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유입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전북권 내 자발적 저감 협약 사업장(9개소)을 대상으로 배출량 저감 계획, 배출농도 저감 강화운영, 고농도 발생시 저감조치방안 등을 집중 점검하여 사업장 감축 목표달성을 유도한다.

첨단대기오염 감시장비를 활용해서 미세먼지 배출원 밀집지역(산단단지 등)을 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감시하고 선별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은 방지시설 적정운영 등 적법 여부를 점검한다. /김옥기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